전북형 교육특구도시로 '원년을 열다'

도, 특자도에 걸맞는 교육 · 소통 · 협력 추진
'함께 성공' 위해 대외적 소통 · 협치 강화

시민대학 ·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등 구축
실리외교 통해 전북 인지도 제고 목표

전북도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는 도정 역량을 갖추고 도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기 위해 교육부문을 비롯해 정치권 등 다양한 소통·협치 활동에 펼쳐 '함께 성공'을 거두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 교육소통협력국은 8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2023년 비전을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대학, 시군, 의회, 정당, 출향도민, 도민 등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25일 도-교육청-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그 간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교육관련 사업을 도와 협력사업으로 전향하고, 예산도 상호 분담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에 있던 교육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2022년 8월에 전북도-전북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재경전북도민회의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부터 4개시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농촌유학 사업을 올해는 7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라북도농촌유학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나아가 예산 확보 등 농촌유학 협력사업의 안정적 지원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간 교육시다리 복원, 지역간 인재계층 이동으로 국가적 교육도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서울시와의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고졸인력에 대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도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는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해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 사업,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모두배움터 조성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대학 연계·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 및 지방대 충원률 부족 등 지역과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 대응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대학협력 최대 현안은 교육부의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규지역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이다. 최근 발표된 최근 발표된 RIS 기본계획 및 RISE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 도-대학-혁신기관이 함께 적극 공모에 대응, 선정됨으로써 지역 및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소멸기금을 활용한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중고교 연계사업은 중고교 학생에게는 도시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대학은 학교 홍보가 가능해 신입생 모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자체-대학 간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정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역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권리증진 및 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북도는 청소년스마트 체험 활동을 위해 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해오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을 확대하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유해환경감시단을 집중 운영하여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2023 신규사업으로 도내 인구소멸지역, 교육 소외지역에 '전북시민대학'을 지정 및 시범 운영하여 광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도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정치권과 상호 공조하여 결집 대응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연고·동행 국회의원과 초당적 협치를 추진하고, 정례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등 정치권과 소통 협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는 상호 권한과 책임 존중을 기반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리지와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도민을 위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무적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 각지 출향도민(350만명)의 전북도민회(36개소) 발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자존의식을 고취하고, 귀농·귀촌, 도내 농산물 판매, 관광지 홍보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소통을 통해 '생활인구'를 계속 늘려나 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멸의 해법을 풀기 위해 전북도의 건의로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사업을 도내 외국인 인재 400명과 함께 시작할 계획이다.

전북도와의 자매·우호지역(5개국 11개지역)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통상,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로 전북도의 대외적 인지도를 실리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도는 2023년에는 맞춤형 스마트 도정 홍보를 통한 민생·혁신·실용의 도정운영 정책소통에 집중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고 참여형 홍보를 확대하여 전달력과 호감도를 높이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추진 기반을 마련한 만큼 2023에도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교육청, 대학, 시군 등과 원팀이 되어 협력 및 공동 대응하고 의회, 정당 및 해외 교류도 활발히 하는 등 대내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도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8일 전북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농촌진흥사업 주요 업무보고와 영농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영농현장에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농업 · 농촌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김종훈 부지사, 농업기술원 찾아 농촌진흥사업 · 영농현안 점검
"농생명산업수도에 걸맞은 농업 · 농촌을 만들어 달라" 당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8일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요 농촌진흥사업과 영농현안을 점검하고 연구·지도사업이 농생명산업 수도와 스마트농업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당부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박동구 전북농업기술원장에게 지난해 사업 추진 성과와 디지털농업, 치유농업 등 중점 추진 과제 및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술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해 농생명산업수도에 걸맞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지사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 연구시설인 식물의학 실험실(병해충 진단·방제 연구), 종합분석센터(토양,비료 등 분석), 장미 신품종 육성 온실, 화훼 종묘 보급센터(프리지아 유리온실)의 연구내용을 보고 받고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김재훈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망 간담회

시 · 군과 대기환경측정망 신뢰도 향상에 총력 다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간담회를 8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14개 시·군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전반적인 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행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자료 신뢰도 향상으로 적합한 대기질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도민 건강을 위한 신속·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44개 대기환경측정소가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개소 신규 설치로 총 46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각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등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돼 전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

올해 정밀안전진단 · 비상대처계획 33개소에 16억5000만원
재해 취약 저수지 보수 · 보강 29개소에 73억8000만원 투입

전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확대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만5,000만원을 투자해 정밀안전진단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저수용량 5만 톤 미만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병행해 올해 3~4월 중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취약 저수지(5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우선 추진 대상으로 33개소에 16억5,000만원, 재해취약 저수지 보수보강으로 29개소에 73억8,000만원을 투입해 취약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 평생교육원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아침마당, MBC TV, JTV, TBN등 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워 빛, 빛, 빛" "스피치 스타일" 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사랑충서도사등 자격증 소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